

# '굿바이 코로나'...3년 4개월 만에 일상 되찾다

### '심각'서 '경계'로 하향...6월부터 확진자 7일 격리→5일 권고로 동네의원·약국 마스크 해제, 병원급 의료기관·입소형 시설은 유지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바뀌고, 동네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첫 발생 후 3년여 만에 일상을 되찾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6월 1일을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3년 4개월 만에 국민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일상회복을 선언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하향에 맞춰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는 격리 의무가 사라진 후 확진자가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출근해 일하는 일이 없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기관별 지침 마련과 시행도 독려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내달부터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한다. 단,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국 후 3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것도 종료된다.

정부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하향 이전에도 이러한 방역 조치들을 조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6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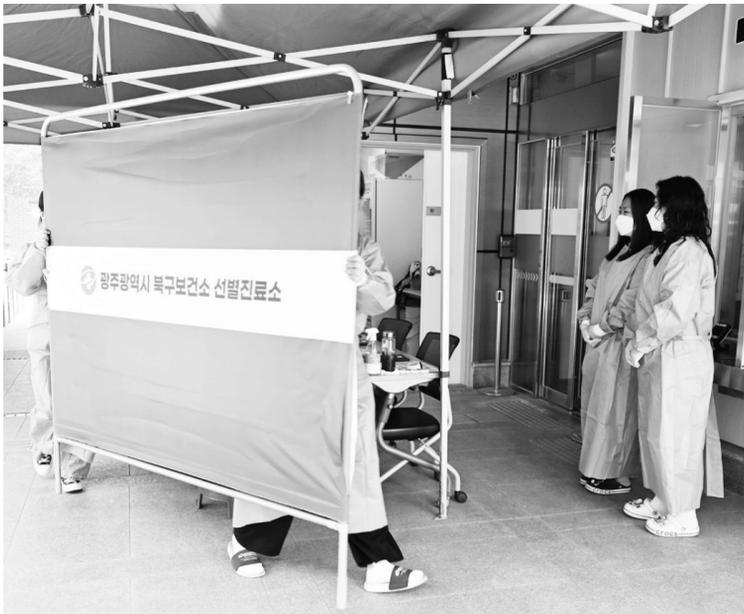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되, 현재 9곳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는 일간 단위에서 주간위로 전환되며, 정부 대응 체계도 범정부 중대본에서 보건복지부 중심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바뀐다.

향후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감시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로 바뀌는데, 정부는 일단 2단계 이후에도 연말까지 중심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향후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정부가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11일 광주 북구보건소 코로나19 의료진들이 선별진료소에 설치했던 펜스를 걷어내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대유행 위험이 상존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고려해 신종 감염병 대응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런 계획은 감염병 유행 100~200일 이내에 백

신 등 대응 수단을 확보하고, 하루 100만 명 이상 발생 상황에 대비하며, 취약계층을 보호해 위중증·사망과 건강격차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에 따라 수립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정부, 신·변종 '감염병X' 대비 하루 100만 확진 대응체계 마련

정부가 11일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등의 방역 전환 조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신·변종 감염병(Disease X)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유행 후 이른 시점에 백신 등을 개발하고 하루 100만명 확진자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되돌아보고 범부처 차원에서 개선책을 모색할 계획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감염병의 대응형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대응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 감염병 유행 100일 혹은 200일 이내에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기바이러스, 출혈열바이러스 등 국내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병원체, 시제품 백신을 사전에 생산해 비축하는 한편 메신저 리보핵산(mRNA) 등 핵심 플랫폼 확보를 추진한다.

코로나19 하루 최대 확진자(62만명)보다 많은 100만명의 일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방역·의료역량을 갖추는 데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초고 사망 등 방역·의료 대응 역량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반성에서다. /연합뉴스

### 병사 휴대폰 사용 확대 추진

### 기상~밤9시, 7월부터 시범운영

군대에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오전 6~7시 정도인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즉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평일은 일과 후인 오후 6~9시, 휴일은 오전 8시30분~오후 9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는 11일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사용 시간을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전 군의 약 20%에 해당하는 부대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부대는 육군 14개, 해군 4개, 공군 9개, 해병대 3개, 군병원 15개 등 총 45개 부대이며, 해당 부대 소속 병사의 수는 약 6만명에 달한다. 시범운영을 거쳐 이 방안이 확정되면 평일 기준 3시간에 불과한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4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경계근무와 당직근무, 대규모 교육훈련 시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는 등 임무 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부대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 시 휴대전화 사용만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휴대전화 사용 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으로 제재를 강화했다. /연합뉴스

## “제사 주재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연장자가”

### 대법 '아들 우선' 판례 15년만에 파기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아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숨진 A씨의 유족 간 벌어진 유해 인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11일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지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우선 "현대 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 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했다"며 "제사용 재산의 승계에서 남성 상속인과 여성 상속인을 차별하는 것은 정당화할 만한 합리

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 개인 존엄과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위해 이번엔 변경한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에 성별이 아닌 나이와 근친 관계를 새로운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다만 '최근친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했다. 또 법적·사회적 안전성을 위해 이번엔 변경한 법리는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 전국체전 성공 협력

### 전남 방문해 준비상황 점검·해외동포선수단 지원계획 논의

200만 해외동포 체육인을 대표하는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가 12일까지 3일간 올해 전국체전 개최지인 전남을 사전 방문해 해외동포와 하나 되는 전국체전 성공 개최 협력 다짐행사를 펼쳤다.

이 기간 정주현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장과 미국·일본·독일·캐나다 등 총 19개국 임원진 50여 명은 전남도와 함께 대회 준비 상황 및 해외동포선수단 지원 계획을 논의하고, 해외동포선수단 숙소와 전남 주요 관광지 등을 방문한다.

첫 날인 지난 10일 저녁 김영록 전남지사 주재로 영암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환영 만찬을 열어 해외동포선수단 임원진에게 고국의 따스한 정취와 가장 한국적인 맛으로 평가받는남도 음식의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전국체전 기간 고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 선수들이 그동안 같고 닮은 기량을 맘껏 펼치도록 숙박, 교통, 의전 등 각종 편의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주현 회장은 "전남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올해 체전은 코로나에서 자유로

운 첫 대회인 만큼 해외동포선수단이 대거 참여해 전남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끽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전남도는 해외동포선수단이 희망하는 수련원, 연수원 등 우선 사용 지원, 숙소와 경기장을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차량 지원, 36명의 국가별 전담지원반 편성 등 종합 지원계획을 발표해 각국 임원진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1년 설립한 세계한인체육회 총연합회는 대한체육회와 인준한 해외동포체육회 19개국 지부로 구성됐다.

올해 '제104회 전국체전'에는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인 18개국 1500여 명의 해외동포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목포를 중심으로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된다.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열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발생암매각공고

1. 입찰명: 발생암매각 공역  
2. 현장소재: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에서 발생암 토석 약 174,481㎥(자연상태 모암 기준)  
3. 입찰방법: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장소: 호남고속철도2단계 5공구 현장사무실)  
4. 계약착수 및 완료일: 계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 매도 7억7천만원

####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 무안군 청계면 감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2억7천

####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접 땅 4,650㎡ (1,406평)

- 공사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 컨테이너 있고 공사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 고흥군 도화면 사력리 전 포함한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전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2023. 4. 10. 주주총회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채권 금액이 있으시면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내에 이의 및 채권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주식회사 에두말  
광주 북구 첨단연선로 77번길 20, 2층 (연제동)  
청산인 오지왕

###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2차)

본 회사는 서기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04월 06일 해산등기를 완료하고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이 공고 게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5월 12일  
주식회사 드림오션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501호(둔덕동)  
청산인 강영근

### 특별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양 서광표(2211010-XXXXXXX)
- 최후주소: 남원시 노송로 1255-9, 104동 1201호 (노암동, 노암주공아파트)
- 등록기준지: 전라북도 남원시 천계동 34번지

피상속인 양 서광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특별상속한정승인을 전수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5.10.1043호로 신청하여 2023년 5월 9일 법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5월 12일  
• 상속인: 서호준(650219-XXXXXXX)  
나주시 남평읍 풍림남석길 55-7  
• 신고기간: 2023. 5. 12 ~ 2023. 7. 22.  
• 채권신고처: 상속인 서호준의 주소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71년을 밝히는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역내대  
북 구: • 동 266-1920 • 문 266-1960  
• 북 525-3761 • 신 222-8171  
• 오 266-7801  
• 동 433-1503 • 동 433-1503  
• 동 673-6836 • 동 222-9054  
• 동 225-6001 • 동 222-9054  
• 총 222-8171  
남 구: • 남 673-6836 • 북 651-1833  
• 북 525-3761 • 신 372-2352  
• 오 266-7801 • 문 376-7153  
• 전 671-7278  
서 구: • 광 382-5788 • 상 372-2352  
• 서 369-1625 • 문 376-7153  
• 지 376-6511 • 동 603-0311  
• 화 369-1625  
광 산 구: • 남 952-1687 • 월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955-0451  
• 광 산 944-0444